

# 도서관 이용안내

구 분	이용시간
일반자료실, 아동자료실, 디지털자료실	09:00~18:00
열람실	08:00~22:00

## ● 자료 이용 안내

- 대출자료 : 도서 1인 5권 이내, DVD 1인 1점
- 대출기간 : 도서 14일, DVD 7일
- 참고사항 : 가족회원의 경우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도서 대출 가능  
자료 분실 및 훼손 시 동일 자료로 변상

## ● 관외대출회원가입 안내

- 가입대상 : 경상북도 거주자 및 영양군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
- 가입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관외대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원 등록

##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휴관)

##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http://dovol.youth.go.kr/dovol/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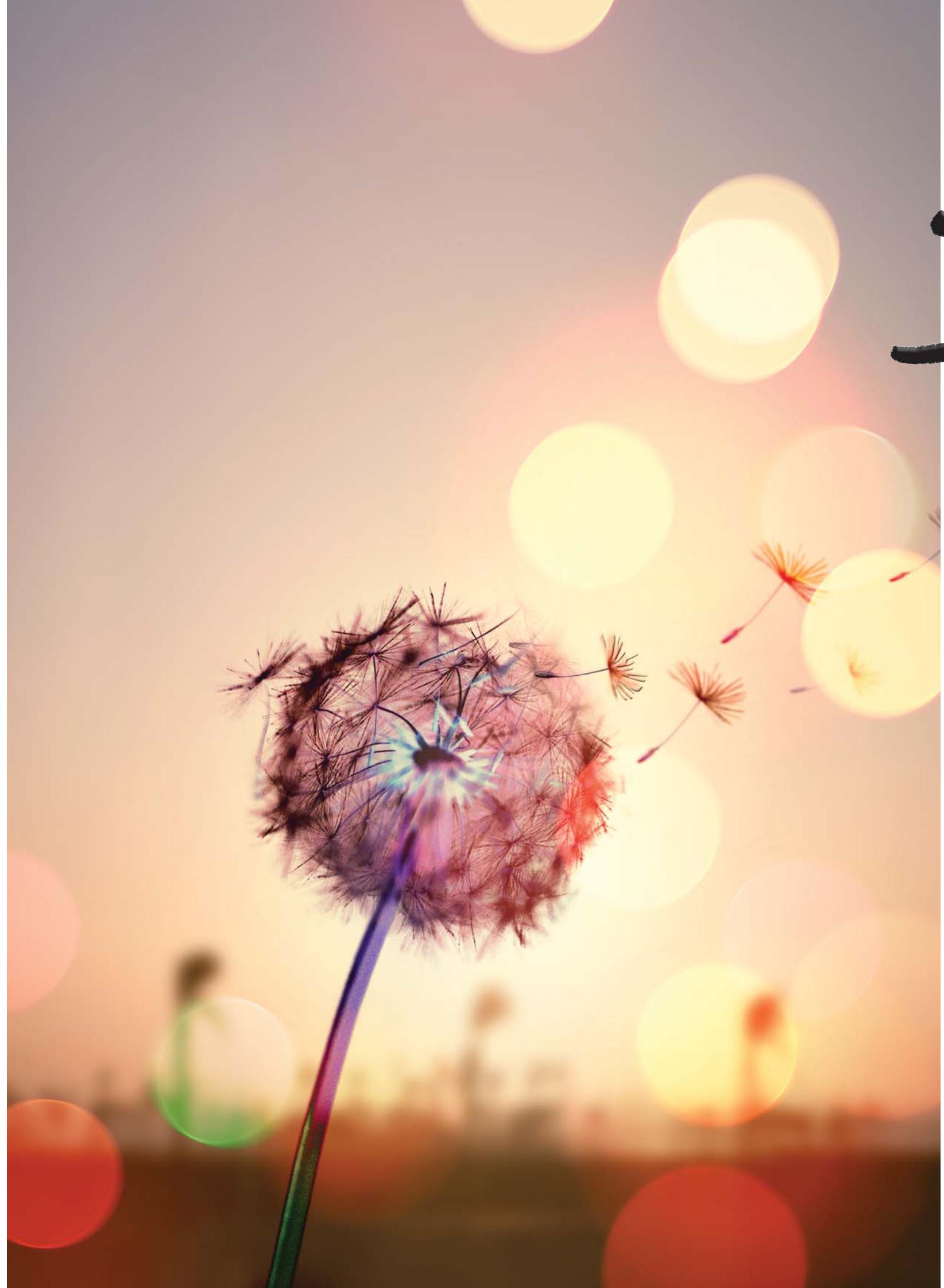
- 신청방법 : 청소년자원봉사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
- 활동시간 : 학기 중 토, 일 13:00 ~ 15:00  
방학 중 매일 13:00 ~ 15:00 (단, 도서관 휴관일 제외)
- 참고사항 : 봉사활동 확인서는 청소년자원봉사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가능

## ● 찾아오는 길



주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팔수로 538번지  
전화 (054) 683-2829 팩스 (054) 683-1718

편집 · 발행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발행일 2016. 11. 1.  
홈페이지 주소 <http://www.yylb.go.kr>



고비  
2016 제6호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소식지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고비란 간절, 편지 같은 것을 꽂아 두는  
물건. 우리 도서관은 소식지 '고비'를 통해  
앞으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추  
억을 하나하나 엮어 갈 생각이다.

## | Contents |

- 02 늘 품어린이 독서회원 글마당
- 03 독서 칼럼
- 04 도서관 행사 마당
- 06 평생 교육 마당
- 07 사서 추천 도서
- 08 도서관 이용안내



| 늘품어린아독서회원 글마당 |

## 「친구가 필요해」를 읽고

최연석 (늘품어린이독서회원)

이 책을 쓴 사람은 친구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친구는 소중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주인공인 은애가 민지한테 따돌림을 받습니다. 민지는 예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은애는 민지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놀리면서 자신의 안 좋은 점을 학교에 널리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민지가 은애를 싫어하는 이유는 친해지려고 툭 장난으로 건드렸는데 은애가 기분이 상해서 선생님께 일러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지는 은애를 그때부터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나중에 친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은애의 이모와 어머니가 방법을 찾아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모는 은애한테 “너가 자신감이 생겨서 친구 칭찬을 많이 해주고 친구의 안 좋은 버릇을 고쳐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둘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친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가 힘들 때나 친구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들도 차곡차곡 쌓이면 그 우정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 독서 칼럼 |



#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내가 근무하는 학교 도서관을 가노라면 건물 근처에서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라는 문장이 새겨진 비석을 만나곤 한다. 바로 여기가 도서관임을 알리기라도 하는 듯 정겹게 서 있는 비석이 나에겐 항상 반갑기 그지없다. 옛날 그리스인들은 도서관을 가리켜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라고 했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헝클어져 있던 내 머릿속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맑게 개 하늘처럼 또렷해지고 한다.

돌이켜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절 줄곧 문예반 활동을 하며 도서관 지킴이가 되고자 했던 시간들이 결국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전공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책을 읽는 독자가 아닌 책을 만드는 편집자의 길로 들어서게 해 주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책과 독자와 저자의 관계를 아우르는 ‘저작권’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며, 베스트셀러가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평하는 글을 써서 출판평론가로 등단하기도 했다. 이제 나는 지성의 전당으로 불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책과 저작권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책과의 인연 때문에 빚어진 이러저러한 고정들이야말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독서는 교향악의 연주와도 같이 다양한 기능들이 한데 어울려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적 활동이다. 세계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고 했으며, 시인 말라르메는 “결국 세계는 한 권의 아름다운 책에 이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말을 남겼다. 베이컨은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담론은 기지 있는 사람을 만들고, 작문은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고 했으며, 쇼펜하우어 같은 이는 “독서는 자기 머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어디 그뿐인가. 원스턴 처칠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책읽기였다.”고 했으며, 괴테는 “나의 문학은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고백을 남겼다.

현대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아기의 정신을 자극하라. 아이들에게 요람에서부터 책을 읽어주라.”고 역설한다. 이런 충고를 충실히 따른 어머니로부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목들이 싹텄다.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를 새로 썼던 많은 위인들도 책읽기의 달인들이었다.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기 전 한 달 동안 이집트 원정을 나서면서 1000여 권의 책을 싣고 떠났으며, 세종대왕은 지나친 독서로 눈병이 난 외증에도 책읽기를 끊지 못했다. 에디슨은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시립도서관 장서를 몽땅 읽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오쩌둥은 언제나 비서관들에게 책 제목으로 된 메모를 남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처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책은 “값싸게 주어지는 영속적인 쾌락”(몽테뉴)이며,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벤저민 프랭클린)이요,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데카르트)이었다.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연구실에는 3만여 권의 책이 땅리를 틀고 있다. 틈나는 대로 읽으려고 모아 놓은 책들이 더 이상 발을 딛기 어려울 만큼 가득 쌓여 있다. 그래도 나는 책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책으로 쌓은 탑이 높아만 간다. 언젠가는 저 녀석들을 모두 읽고야 말리라는 나의 오기도 점점 커져만 간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점령구처럼 진구해 오는 책들의 대열 매 앞에 서서 좋은 책과 많은 돋자들을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감히 권하건대, 읽어야 한다. 읽고 또 읽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읽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표어는 이제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기필코 책 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행복이란 운 좋은 사람들이 받는 어떤 축복 같은 게 아니야. 너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가는 마음의 상태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행복이 너를 선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샬롯 리드 저, 「우주는 네가 시작하기만 기다리고 있어」 중)

# 도서관 행사 마당



## 제52회 도서관주간

‘도서관의 봄, 책을 봄, 미래를 봄’을 주제로 4월 12일(화)에서 17일(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최되었다. 추천 도서 전시회, 원화 전시회 「귀신 선생님과 진짜 아이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룰렛 독서 퀴즈」, 인형극 「사윗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죽공예를 활용한 「다양한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 과년도 잡지 무료 나눔, 관외 대출 이용자들을 위한 이벤트 「포춘 쿠키 & 헬링 북」 행사를 통해 베스트셀러 도서를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졌다.



##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영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4월 20일(목)부터 12월 1일(목)까지 매주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운영한다. 정보·문화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독서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문해 능력 향상 및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평생학습프로그램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여름독서교실

‘인문 고전을 통해 바른 인성 배우기’를 주제로 7월 26일(화)부터 7월 29일(금)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영양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30명 정도를 학교장 추천 및 개별 신청으로 받았으며, 선정된 도서는 「처음 만나는 명심보감」으로 “책 속의 일화로부터 바른 인성 배우기, 이야기 이어 짓기, 토론하기, 서평 쓰기, 독후감 쓰기, 독서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독서교실을 통한 독서의 즐거움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독서 지도를 통한 자발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어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독서경험을 통한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했다.



## 늘풀어린이독서회

우리 도서관은 관내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월 2회,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00~13:00 2시간 동안 ‘늘풀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한다. 연령에 맞는 권장도서 및 추천도서를 독서한 후 독서지도 선생님의 지도로 독서 감상문 쓰기, 원고지 쓰는 법, 논술, 토론하기 등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회원들의 올바른 독서생활을 형성하고, 책 읽는 즐거움과 독서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제4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2016 경주)

2016년 9월 30일(금)부터 10월 2일(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및 경주시 일원에서 제4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배움의 기쁨, 나눔의 행복, 경상북도 평생학습!”을 주제로 경북에 소재한 시·군, 교육지원청, 도서관, 대학, 평생교육단체·동아리 등 130여 기관이 참여해 우수한 평생학습의 성과 공유는 물론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들을 제공했다.

우리 도서관은 「산골아씨 공예에 빠지다」란 주제로 냅킨아트, 손뜨개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여 호평을 받았다.

## | 도서관 행사 마당 |



## 9월 독서의 달

2016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전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올바른 독서습관 정착 및 도서관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9월 1일(목)부터 30일(금)까지 도서관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각종 독서관련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명	기간	대상	내용
룰렛 독서 퀴즈	9. 1.(목) ~ 27.(화)	유아, 초등학생	룰렛 독서 퀴즈를 끌고 응모 후 추첨을 통해 상품 수여
추천 도서 전시	9. 1.(목) ~ 27.(화)	도서관 이용자	추천 도서 40여 권 전시
행운의 책갈피	9. 1.(목) ~ 28.(수)	도서대출 회원	행운의 책갈피가 든 도서를 대출하는 이용자 20명에게 상품 증정
원화 전시회	9. 6.(화) ~ 23.(금)	도서관 이용자	「토끼와 호랑이」원화 전시
가죽 공예 체험	9. 7.(수)	지역주민	가죽공예를 활용한 생활소품 만들기
인형극 공연	9. 8.(목)	유치원생	「아기호랑이」인형극 공연
다독자 표창	9. 21.(수)	관외대출회원	관외대출회원 중 다독자 6명
방방곡곡 문화 공연단 공연	9. 23.(금)	초등학교 저학년 200명 정도	방방곡곡 문화공연단 지원 뮤지컬 「돼지 삼형제」공연



## 영양 과학 축전

관내 초·중등학교 및 유관기관이 함께한 2016 영양 과학 축전 ‘청소년 과학 꿈·끼 한마당’이 11월 3일 개막했다. 영양군민회관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과학, 기술, 예술이 어우러진 흥미로운 탐구 과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과학적 태도를 길러 융합인재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우리 도서관은 관내 유·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틸트 스위치 무드등’ 체험을 하도록 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우리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2016 「공공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영양공공도서관 최초로 선정되어, ‘인문학, 창조와 미래의 영양에서!!’라는 주제로 청소년들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청소년 대상으로 ‘인문학 글쓰기 및 토론 강의’를 했고, 7월 마지막 주 할매의 날에는 청소년들이 조부모와 함께 영양 작은 영화관에서 ‘인천상류작전’ 영화를 관람하며 ‘효’ 체험을 했다. 일반인 대상으로 영양문화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유교문화와 향교 활성화에 맞추어 ‘시 낭송 특강’을 했고, 문학 기행을 전주 ‘최명희 문학관’에 다녀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학을 통해 시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교감을 갖게 했으며, 독서의 즐거움과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갖게 해 주었다. 나아가 영양군 문화 융성에 기여했다.



## 정보화교실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6 「공공도서관 정보화교실」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7월 6일에서 8일까지(3일간) 60세 이상 지역민을 대상으로 오전 10시~12시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폰 활용 – 안드로이드폰의 기본 조작 및 어플 사용법’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정보화교실」은 어르신들의 스마트 폰 사용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 LED 등 교체 및 천장 석면 제거 공사 시행

우리도서관은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환경개선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텍스로 시공된 천장을 모두 제거하고 건강한 자재로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우리도서관은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마치 종력과도 같아서 한 번 그 쪽으로 갈수록 자꾸만 더 당겨지는 것이니, 기왕이면 행복과 가까운 쪽으로 가야한다.  
〈김수영 저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 봐」 中〉

## 평생교육 마당

### ● 평생교육강좌 운영

지역주민들의 자아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강좌를 연중 운영 중이다.

### | 상반기 평생교육강좌 |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일시
로봇과학	초등 1~6학년	3. 26. ~ 6. 25. (총 13회)	매주 토 13:00~15:00
인물로 배우는 우리역사	초등 1~4학년	3. 26. ~ 6. 25. (총 13회)	매주 토 15:00~17:00
어린이 독서논술	초등 3~6학년 (늘봄어린이독서회)	3. 26. ~ 11. 26. (총 14회)	매월 둘째, 넷째 토 11:00~13:00
생활 민화 (문화 나누리 공모사업)	일반	3. 16. ~ 8. 17. (총 22회)	매주 화 10:00~12:00
냅킨아트 공예교실	일반	3. 24. ~ 6. 23. (총 13회)	매주 목 10:00~12:00

### | 여름방학특강 |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일시
어린이 공예교실	초등 1~6학년	8. 2 ~ 8. 18. (총 6회)	매주 화, 목 10:00~12:00
주산, 수학나라 암산왕	초등 1~3학년	8. 2 ~ 8. 18. (총 6회)	매주 화, 목 13:00~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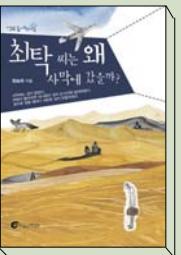
### | 하반기 평생교육강좌 |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일시
주산, 수학나라 암산왕	초등 1~3학년	9. 10. ~ 11. 26. (총 12회)	매주 토 09:00~11:00
드론 우주항공 교실	초등 3~6학년	9. 10. ~ 11. 26. (총 12회)	매주 토 13:00~15:00
생활 민화	일반	9. 6. ~ 12. 27. (총 17회)	매주 화 10:00~12:00
(코바늘로 뜨는) 나만의 손뜨개	일반	9. 22. ~ 12. 29. (총 15회)	매주 목 10:00~12:00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예교실	일반	9. 22. ~ 12. 29. (총 15회)	매주 목 13:00~15:00

## 사서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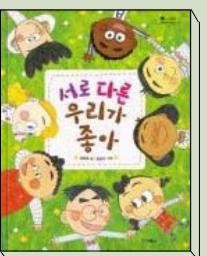
### 최탁 씨는 왜 시마에 갔을까?

정승희글, 김윤주 그림 / 바람의 아이들 / 2015



### 서로 다른 우리가 좋아

김경화글, 권송이 그림 / 스콜라 / 2015



### 빼뚤빼뚤 가도 좋아

이남석글, 김현영 그림 / 사계절 / 2015



### 생각 공유

리오르 조래프글, 박종성 옮김 / 와이즈베리 / 2015

